

한국의 전통 가정교육과 무교(巫敎)

-현대 사회의 가정교육 정립을 위한 무교의 역할을 중심으로-

박 일 영
(가톨릭대학교)

<요약>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가정도 급속히 변질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가정이 화목한 제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우리 사회의 희망도 되살아날 것이다. 특히 가정이 이 사회의 일치와 평화를 위한 표징(表徵)이 될 때, 이 사회는 활력과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로 거듭 날 것이다. 우리는 인간성이 말살된 폐쇄된 세계의 모습을 일상의 경험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위기가 바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성(靈性)이 사라져버린 가정과 그렇게 메마른 가정에 뒤따르는 가정교육의 부재와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다운 삶의 길을 재발견하는 일이 우리에게 다시금 중요하게 다가온다. 이제 기초공동체인 가정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는 우리에게 삶의 역동성을 불러일으키는 비전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상기시키고 있다.

무교가 수 천년 동안 한국인들의 삶에 끼친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가정교육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한국의 무교는 문화의 전승이라는 모습 속에서 오랜 동안 그 기본 심성이 단절되지 않은 채 공동체의식, 현세중심주의, 현실 적응, 문화 전승 등의 중요한 교육적 기능을 꾸준히 유지해 왔다. 그러한 무교의 종교심성 내지 영성과 사상이 지금까지 우리 문화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 또한 무교에서 강조되고 있는 공동체성을 특색으로 하여 한국인의 심성과 가치관이 - 가정을 그 기점으로 하여 - 상당 부분 형성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것이야말로 무교가 새삼 이 시기에 동서를 막론하고 다시 각광받는 이유의 하나이다.

새로운 천년기(millennium)라는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심각하고도 신속하게 변하는 현대 사회 안에서 가정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시기에 문화 계승의 중요한 교육적 마당으로서 가정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작업은 뜻 있는 일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전통 가정교육의 원리들을 무교라는 이 땅의 기층종교와 관련지어 규명함으로써 한국의 가정교육의 뿌리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그러한 원리의 재발견은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한국인의 문화전통을 재확인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틀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핵심주제어 : 가정의 변질, 교육의 문제점, 무교의 영성, 무교와 가정교육, 가정교육의 원리

Traditional Home Education and Shamanism in Korea

PARK Il-young

(The Catho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The Home has been rapidly being transmuted with the profound change in the competitive society. It is important for the sound society that we overcome this kind of crisis and recover harmonious home. Especially when the home becomes the sign of the unity and peace, our society will regain the form of a dynamic community. We experience day by day an inhumane world. Such kind of crisis is connected directly with the waste home of disappeared spirituality and with the absence of home education.

This situation shows us how important is the communiality which is accentuated in shamanism. Therefore this archaic religion[shamanism] stands now in the spotlight, not only of the east but also of the west. The educational value of home as basic community shows us a new vision that provides the dynamics of human life.

For thousands of years, shamanism influenced enormously the life of Koreans. Limited only in home education, korean religious tradition kept steadily important educational function through shamanistic culture, like community consciousness, this world-centered thought, pragmatic accommodation etc. This kind of shamanistic religiosity or spirituality makes the root of korean culture. And this religiosity shapes at certain rate the korean mind.

It seems that the role of home is neglected in the rapid and profound transition of the new millennium. In such an era it is quite meaningful to set up again the status of home as an important educational place for the cultural succession. In this context I tried to find out the principles of korean traditional home education in connection with the popular religion. Such a discovery of home-educational principle reconfirms the healthy tradition and provides the paradigm of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authentic korean culture.

Key words: transmutation of home, problem of education, shamanistic spirituality, shamanism and home education, principle of home education.

I.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종교는 인간 삶의 총체적 방식인 문화의 기반이 된다. 그리하여 한국의 종교는 한국 문화 전통의 바탕이 된다. 또한 특정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는 교육을 통하여 전승된다. 한국인의 삶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한국의 교육은 한민족이 지닌 삶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고 전통문화를 이루어왔다. 한편 가정은 교육적 영향력이 가장 지속적이고도 깊게 발휘되는 장(場)이다. 그러므로 한국 종교의 근간이 되는 무교(shamanism)가 전통가정교육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밝히려는 본 연구는 우리의 전통가정교육의 모습을 찾아내고, 가정 자체가 위기에 처한 현대 사회 속에서 가정 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리라고 기대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세계화(Globalization) 이념과 신자유주의라는 명분 아래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현대 사회 속에서 가정의 변화와 교육의 문제점들을 그려본다. 다음으로는, 한국 전통사회에서 이루어졌던 가정교육의 실상을 종교와 관련하여 찾아본다. 이어서, 무교와 가정교육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시도한다. 먼저 무교 사상과 가정교육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무교의 교육사상을 찾는다. 그리고 나서 무교의례와 가정교육의 상관관계를 다룬다. 가정교육 내에서 종교 내지 종교의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무교의 테두리 안에서 살펴보고자 함이다. 전통적인 가정 교육의 의미와 방향을 무교의 자료들을 통하여 검토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교육사상을 천착한다.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기(millennium)라는 미증유의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심각하고도 신속하게 변하는 현대 사회 안에서 가정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시기에 특히 문화 계승의 중요한 교육적 마당으로서 가정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작업은 뜻있고 시의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전통 가정교육의 원리들을 무교라는 이 땅의 기층 종교와 관련지어 규명하게 되면, 한국의 가정교육의 뿌리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한 원리의 재발견은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한국인의 문화전통을 재확인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틀을 제시하리라고 기대하게 된다.

II. 현대 사회의 가정과 교육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사회제도의 기초인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마련이 -

다. 그렇지만 오늘날 가정의 의미 그 자체가 문제시되고 있다. 가정에 대한 비판적 의문이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될 뿐 아니라, 사회의 변화라는 조건하에서 가정으로 하여금 제 나름의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¹⁾ 실적을 최우선시 하는 산업사회의 생활 방식이 가정의 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교육 당국은 가정의 소중함이라든가 부모 자식 사이에 이루어지는 인격적 가정 교육은 간과하고, 전인교육을 진행하는 데에 장애가 되고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교육정책이나 학교교육에 관한 방안 등을 도입하고 있다.²⁾ 거기다가 가정 생활의 여건은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별로 향상되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특히 IMF 이후 많은 중산층 가정들마저도 급격하게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족해체의 과정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가정은 늘 불안하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과도한 요구에 시달리며, 가정의 본래 기능은 저지 당하고 있다.

오늘날에 와서 많은 이들에게 가정은 더 이상 필수적인 제도로 간주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개인적인 발전이나 사회보장을 가정의 테두리 밖에서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가정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많은 이들에게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여겨진다. 심지어 가정이란 인간의 자기 실현을 억누르는 방해물이 된다고 여기기도 한다. 결혼과 가정의 긴밀함, 평생 지속되는 결혼, 가정에 있어서 부모의 권리에 대한 강조 따위는 현대의 요구에 부합할 수 없는 요소로 여겨진다. 가정은 이제 더 이상 자유를 보장하고 예절을 가꾸고 다듬는 본거지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강요된 제도요 거북한 결정을 내리는 곳이 되고 만다. 종교들은 이렇게 ‘편협한’ 윤리를 제시한 장본인으로 치부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교육의 모체와 인간의 일차적인 양육 기관은 먼저 가정이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사랑스런 분위기에서 사물의 바른 질서를 배우며 자연스럽게 세련된 문화 양식에 익숙하게 된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전해져 온 사상과 행동의 양태는 그 가치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역사적인 최선 추구과정의 결과이기 때문이다.”³⁾ 이러한 전통은 가정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드러낸다. 가정에

1) 가정과 현대 사회, 그리고 교육과의 일반적인 관계는 다음의 연구결과를 참조. Paul Becher, *Familie. Personale Lebensgemeinschaft und Gesellschaftliches Strukturelement. Katholische Soziallehre in Text und Kommentar*, Heft 5, Köln, 1976 ; 특히 현재와 미래 한국 가정교육의 전망과 관련하여서는 김재은, 「새 시대 가정교육의 전망」, 『새 시대의 가정교육을 위한 탐색적 연구』,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151-179쪽 참조.

2) 최근 파동을 한 차례 빚었던 과외금지 위헌 결정과 그에 따른 교육 정책 담당자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그렇게 표류하는 한국 교육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3) Karl Steinbuch, *Kurskorrektur*, Stuttgart, 1973, p.154.

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꾸준한 노력과 도전, 사회의 발전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 자녀들에 대한 진지한 관심, 종교적인 정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들이 현대 정신이라는 미명하에 그 동안 등한시 되어왔다.

가정은 개인적, 사회적, 종교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인간의 완성과 성숙을 위한 결정적인 지점이 된다.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서만 가정에 대한 종교적 가르침들의 의미가 명확해 진다. 가족은 인간 사회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교육 공동체이다. 왜냐하면 사랑과 호의가 가정의 생활 원칙이기 때문에 교육의 능력과 인격 형성의 능력은 가정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배양된다. 자기 실존의 구현 및 발전은 타인과 주고받는 만남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가정 안에서 맨 처음 경험하고 실습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은 어린이에게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성인에게도 가정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능력을 전개하는 영역이며, 가정이야말로 활기찬 삶이라는 보화를 가꾸고 이어가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가정은 문화와 종교적 가치들을 가꾸어야 한다.

소가족 제도에서는 대가족 제도와는 달리 부모와 자식을 서로 꼼짝 못하게 묶어두려는 위험이 더 크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들의 이상, 소망, 기대와 함께 문제점들까지 자기 자식에게 고스란히 물려준다. 이렇게 되어 육체적 건강이나 임신양명이라는 가치가 가정교육에서 지나치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가치를 배려한다던가 놀이, 축제, 단체활동 따위는 등한시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⁴⁾ 그렇다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적 안락함에 대한 배려와 함께 정신적, 도덕적, 종교적 가치의 전승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⁵⁾ 가정은 인류문화의 중대한 담지자이며 교육을 통한 문화의 전달자이다.

현대 세계 안에서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증가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나 인격의 성숙을 촉진하지는 못한다. 가정은 차차 문화적으로 경직되고 종교적으로 빈약해지게 되었다. 결혼과 가정에 변화가 이루어진 결과, 현실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전래의 행동방식과 현대식 배우자간의 역할 이해 사이에서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일터와 가정의 일치, 대가족 제도 같은 가정을 안정시키는 전통적 요소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오늘날 보다 높은 생활 수준과 평균 수명의 연장은 결

4) Roman Bleistein, *Kinderfeindliche Gesellschaft?*, Stimmen der Zeit., 1976, p.1.

5) Jean Piaget, *The Growth of Logical Thought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New York : Basic Books, 1958) ; Erik Erikson,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 Norton, 1980) ; Lawrence Kohlberg,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New York : Harper and Row, 1981) 등의 인간 발달에 관한 이론들을 참조.

혼 지속기간을 지난 세기에 비해 네 배나 길어지게 만들었다. 이런 사정은 배우자간에 더 높은 수준의 성숙을 요구한다. 인생의 고비마다 변하는 본인과 상대방의 육체적, 정신적, 심적 변화에 대하여 양편 배우자는 계속 적응하여야 한다. 그래서 현대 사회 안에서 결혼과 가정은 위기에 더욱 약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사정들은 결혼과 가정생활의 성공 여부가 예전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졌음을 뜻한다. 부부를 위한 가정교육도 필요한 셈이다.

가정의 기능 중에서 의식주의 조달이라는 기본 기능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교육 및 사회화라는 중요한 기능은 여러 면에서 감퇴되어 오고 있다. 부모가 모두 집밖에서 직장에 종사하는 동안 자녀들은 유아원이나 유치원 혹은 학교나 학원에 온종일 머무른다면, ‘가족 구성원간 의사소통 센터’로서의 가정은 기능정지 상태가 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가족들은 가정을 공동체로서 완전하게 체험하지 못하며, 그냥 무리를 이루어 모여 살면서 자기 직업과 학교와 사회에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외(婚外)나 가정 밖에서 인간적인 만남을 추구하기도 한다. 인간의 숨결이 느껴지는 따뜻한 가정을 마련한다는 일은 그래서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하다.⁶⁾

부모들이 솔선 수범하여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실천한다면 자녀들과 집안에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인간적 완성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자녀들의 신앙은 성숙해 간다. 그렇게 해서 종교생활이 다만 가족원들의 정신적인 완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성실한 인간성의 계발에도 일조를 한다. 친절한 손님 접대,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사회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노인들에 대한 보살핌, 특히 미혼모들처럼 완전한 의미에서 가정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정은 사랑의 다리를 놓아줄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가정이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렇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도 역시 가정 안에서 먼저 영성(靈性)이 심화되는 것이다.

부모에게는 자녀교육에 대한 권리가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부모는 생명을 주었으니 자녀의 첫 교육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부모는 일차적으로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교육에 권리와 책임이 있다.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사회에 적응해가도록 준비시켜 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교육기관들이 다음 단계의 교육과제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는 세계관이 다양해진 사회 속에서 교육을 독점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이란 가치관이나 윤리규범을 도외시하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6)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정교육에 대하여는 이재연·김경희, 『부모교육』, (서울 : 양서원, 2000) 참조.

III. 전통 사회의 가정교육

교육이 “인간다운 삶의 양식인 문화를 축적하고 전승하는 일”⁷⁾이라고 한다면, 가정은 그러한 일을 담당하는 일차적인 주체이다. 오늘날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인간은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삶을 시작하며 대부분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자기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간다. 한국인의 삶의 양식으로서 한국 문화가 있다면, 그러한 문화를 축적하고 전승해온 일차적인 주체 역시 한국인들의 가정이었을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⁸⁾ 여기서는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온 가정교육의 면모를 정신적 측면과 함께 그 표현으로서의 종교의례에 비중을 두고서 찾아보고자 한다.

무엇이 한국의 전통사상인가? 한 마디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교육학자 이계학은 한국 전통사상의 특성들이 사머니즘적 바탕을 가진 단군 이야기에 용해되어 있다고 주장한다.⁹⁾ 그에 따르면, 민족의 근원을 밝히는 시조신화로서 단군신화는 한민족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조망해 볼 수 있는 ‘틀’이 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단군신화를 고찰하면 한국의 전통가정교육사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단군신화에 나타나는 교육의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은 저승이 아니라 ‘이승’에서 삶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천상을 마다하고 온 사람들이다. 아사달의 단군이 현실 정치를 마무리하고 나서 백악산의 산신이 된 것을 보면, 한국인은 죽어서도 이승을 떠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또 한 사람다운 사람은 저절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다. 쑥처럼 쓰고, 마늘처럼 맵고, 동굴처럼 암울한 고난을 극복하고 인격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승에서 인격(人格)을 실현한 ‘홍익인간’은 죽어서도 죽지 아니하고 숨어서 산신(山神, 산 사람/仙)이 된다.¹⁰⁾

이러한 신화 내용의 분석에 따라, 그는 한국의 전통적인 교육사상을 홍익인간으로 대변되는 ‘인격주의 교육사상’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교육의 이념과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적 원리로는 네 가지가 있는 바, 자발성(自發性)의 원리, 지성(至誠)의 원리, 인고(忍苦)의 원리 그리고 각성(覺醒)의 원리가 그것이다.¹¹⁾ 즉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

7) 이계학 외,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1-6쪽.

8) 유혜령, 앞의 글, 7-22쪽.

9) 이계학, 「단군신화의 교육학적 고찰」, 『황성모회갑기념논문집:사회구조와 사회사상』, 1985, 125-150쪽 ; 이계학,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과 종교』, 한국종교교육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자료집, 1999.12.17., 1-20쪽.

10) 이계학, 1999, 위의 글, 5-6쪽.

11) 이계학, 1985, 앞의 글, 143-145쪽 ; 1999, 앞의 글, 7-9쪽.

해서는 하늘을 감동시킬 만큼 정성스럽고 자발적인 소망을 지니고, 삶에서 당면하는 고난을 극복하여, 새로 나는 변증법적 과정으로서의 신비체험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한민족이 누려야 할 삶의 대표적인 본보기로서 단군의 원초적 이야기에는 ‘삶 중심, 인격 중시, 사람 중심, 산신 사상, 성숙 변증의 신비주의, 조상숭배, 조화 사상’ 등이 들어있다. 이러한 단군신화는 한국인이 추구하는 교육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¹²⁾

이상과 같은 특징을 지니는 한국의 전통교육사상은 공교육의 현장에서는 홍익인간을 운위하는 ‘교육법 제 1조’의 법 조항으로만 명목상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오히려 가정교육의 테두리 안에 그 모습이 간직되어 있다.¹³⁾ 기실 가정교육은 한국인이 전통적으로 지녀온 교육사상이 가정이라는 일차적인 교육의 장에 구체적으로 전승된 것이다. 그것은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한국 가정 대다수의 투철한 교육관으로 우선 나타난다. 그것은 제도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만 그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부터 사람은 모름지기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이웃과 화목한 생활을 통해 조화로운 공동체의 삶을 실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데에서도 나타난다.¹⁴⁾

일상 삶의 질서와 종교적 신앙심을 표현하는 모든 의례(儀禮 ritual)는 장구한 세월 동안 수많은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복합적 양상을 띠게 마련이다. 전통사회의 의례는 가정과 마을의 평안 및 번창을 비는 등 직접적인 현세 삶의 문제를 주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¹⁵⁾ 특히 마을 단위로 시행되는 집단의례는 공동체를 통합시키고 전통문화의 창조와 계승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¹⁶⁾ 근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사회 구조와 생활 공간이 급변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의례문화는 사회 변화에 미처

12) 이계학 외,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195-285쪽.

13)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연구 결과물들을 일별하자면 다음과 같다. 김인회·정순목, 『한국문화와 교육』,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4) ; 김인회 외, 『한국의 전통교육사상』,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박정옥, 민간신앙에 대한 학교교육과 민간교육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93 ; 이계학, 교육의 본질과 삶, 『한국의 교육과 윤리』 3,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1-22쪽 ; 이계학, 「교육방법론으로서의 효」, 『효사상과 미래사회(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323-338쪽 ; 한국종교교육학회 편, 『한국의 종교와 인격교육』, (서울 : 아름다운 세상, 1998).

14) 김광웅, 「전통가정교육의 방법적 원리」, 『새 시대의 가정교육을 위한 탐색적 연구』,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101-124쪽.

15) 장철수,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여기서는 한국의 전통 의례를 관례(冠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로 나누어서 다루고 있다.

16) 장주근, 「민간신앙」, 『한국민속학개설』, (보성문화사, 1979) ; 하효길, 『풍어제』, 빗갈있는 책들 210, (서울 : 대원사, 1998) ; 박일영, 『한국 무교의 이해』, 종교학총서 9, (서울 : 분도출판사, 1999), 122-140쪽.

적응하지 못하여, 상당 부분 그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의례들은 문화적 정체성을 통해 그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시대적 적응력과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¹⁷⁾ 실제 현존하는 마을의례의 종교적 기능은 약화되어 가는 반면, 사회적 통합 기능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¹⁸⁾ 최근에 이루어진 한 마을굿 연구 성과에 의하면, 마을 의례의 사회 통합적 기능은 대동제의, 대동회의, 대동놀이의 삼요소를 통하여 유지되며, 특히 대동회의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된다.¹⁹⁾

전통가정교육과 (종교)의례의 직접적인 관련 문제는 이홍우의 연구²⁰⁾가 그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가정교육에서 의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특히 교육행위의 집단적 혹은 제도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의례는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별 의미가 없으며, 제도적 차원에서 볼 때 비로소 의미가 드러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의례는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의 제도적 의미를 드러내고, 그러한 행동의 총화로 이루어지는 삶의 의미를 깨닫도록 고안된 제도적 장치이다. 그리하여 의례가 가지는 교육적 의미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하여금 ‘집단적 의식’(collective consciousness)을 내면화함으로써 사회에 적응하는 존재로 형성하는 것이다.

인간 공동체가 존속할 수 있는 것은 개인들이 집단적 의식을 내면화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로 전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의례가 바로 그러한 기능을 담당한다. 의례 집전(執典)은 그래서 그 공동체의 집단적 의식을 시범하고 전수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전통가정생활은 거의 모든 면에서 ‘의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전통교과 교재의 내용들이 보여주듯이 어른을 대하고, 손님을 접대하며, 방 뒀고, 물 뿌리고 마당 쓰는 데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동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으로서의 법도(法度)가 뒤따랐다. 이러한 법도는 어른의 본보기에 의하여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었다.

오늘날에도 전통적인 ‘가정의례’는 외견상 준수되고 있다. 그러나 의례의 정신은 사회의 변화와 함께 실종되고 있으며, 특히 그 가정교육상의 기능은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이홍우는 여기서 전통적인 가정의례를 대신하는 오늘날의 가정행사가 행락(行樂)으로 대체되었다는 독특한 관점을 제시한다.²¹⁾ 그런데 행락은 단지 긴장과 스트레스를

17) 덕성여대 인문과학연구소 편, 앞의 글, 1997.

18) 이두현, 동제와 당굿: 경기도 양주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대논집》 17, 서울대학교사범대학, 1978.

19) 주강현, 『굿의 사회사. 한국의 생활과 풍속 1』, (웅진출판, 1992), 166-233쪽.

20) 이홍우, 「전통가정교육의 방법적 원리」,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131-193쪽.

해소하는 치졸한 방안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적인 면에서 볼 때 행락은 역기능을 할뿐이다. 다른 한편, 그는 전통의례를 대신하여 현대에 와서 시행되는 또 하나의 행사로서 ‘가족회의’를 거론한다. 행락과 비교해 볼 때 가족회의는 상대적으로 건전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그렇기는 하나 가족회의도 전통의례와는 차이가 있다. 일견 가족회의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존중되는 민주적 절차로 보인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그것은 각자의 권리 주장과 다른 사람에 대한 요구로 일관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가족회의에서 제시되는 의견은 개인의 목적, 의도, 동기에 따른 행동이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인간 삶의 총체로서의 문화의 의미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전통의례의 역할은 역시 가족회의라는 현대적 제도에서도 그 기능을 온전히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IV. 무교와 가정교육

현대 한국의 무교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문명사회 속의 원초(原初)종교’라고 부를 수 있겠다.²²⁾ 즉, 심각하고도 신속하게 변화하는 사회 한 가운데 생동하는 원형(原型)의 종교라고 말이다. 이러한 무교가 갖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산업화하는 사회 속에서 다시 주목받는 ‘원형적 종교성’(arche-typical religiosity)이라고 말할 수 있다. 흔히 ‘굿정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무교의 종교성은 한국인이 지닌 정신적 유산의 기반이라고 여겨진다. 한국인이 향유하고 있는 고유 문화 속에는 이러한 무교의 세계관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무교의 신앙체계 안에서는 자연계와 인간 사회의 질서가 서로 교차하면서 자연의 요소들과 인간이 우주적인 친교를 이룸으로써 사회 안에 조화(harmony)가 확보된다. 이와 같은 민중종교의 종교성을 ‘우주적 종교성’(cosmic religiosity)이라고 칭하기도 한다.²³⁾ 이렇게 우주적인 종교성에서 계발된 소속감은 의례공동체를 통하여 드러나는 연대적인 삶의 추진력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굿판에서 함께 나누는 생활, 함께 하는 식사, 삶의 갈등과 모순에 대한 공동해소 노력 그리고 불운이나 재앙에 대한 공동 대처로서 말이다. 그렇다면 무교는 의례공동체를 통하여 인간다운 삶의 길을 제시하고 교육하는

21) 이홍우, 앞의 글, 165-166쪽.

22) 박일영, 앞의 글, 178쪽.

23) Aloysius Pieris, *Theologie der Befreiung in Asien. Christentum im Kontext der Armut und der Religionen*, (Freiburg i.Br, 1986), pp.135-138.

종교라고 이해할 수 있다.²⁴⁾ 무교 속에 녹아 있는 교육관의 실상²⁵⁾은 오랜 옛날부터 한국인의 마음속에 녹아있는 무교 신앙의 내용 속에 들어있다.²⁶⁾

무교에서 가정이 차지하는 위치는 절대적이다. 무교의 세계에서 가정은 삶의 역동성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으로 이해된다. 그만큼 올바른 인간을 키워내는 일차적 기회로서 가정교육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무교의 의례들은 주로 가정[집]이라는 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거행된다. 무교의 본격적인 의례인 ‘집굿’에서 들을 수 있는 대표적 서사무가인 ‘바리공주’라든가 ‘당금애기’의 내용을 들어보면, 무교의 의례가 가정교육을 위하여 어떠한 비중과 효과를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²⁷⁾ 먼저, 생명의 존엄성을 주지시키는 교육 현장을 살펴 볼 수 있는 곳은 지금도 한반도 전역의 굿판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당금애기’라고 불리는 서사무가의 구송 현장에서이다.²⁸⁾ 그 줄거리를 들여다보기로 하자.

당금애기라는 처녀가 집에 혼자 있을 적에 시주승이 그 집에 나타난다. 시주승의 유혹으로 둘은 결국 동침하게 된다. 그런데 당금애기가 자는 동안 구슬 세 개가 입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된다. 꿈 이야기를 들은 증은 아들 셋을 낳을 것이라고 해몽을 해준다. 당금애기의 해산이 가까워 올 즈음해서 가족들이 돌아온다. 우여곡절 끝에 죽임을 모면한 당금애기는 뒷동산에 저절로 생긴 돌 함 속에 갇히게 된다. 당금애기는 그러나 죽지 않고 돌 함 속에서 아들 세 쌍둥이를 낳게 된다...²⁹⁾

아들 삼 형제는 자라나서 아버지를 찾으려 하게 되고,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아버지는 그러나 ‘산 잉어를 잡아다가 회를 해서 먹고 산 고기를 입으로 토해내라’든지, ‘삼 년 묵은 소 뺨다구[뺨다귀]를 모아서 산[살아있는] 소를 만들어 내야 한다’느니, ‘짚으로 복과 닭을 만들어서 짚 복이 소리가 나고 짚 닭이 회를 쳐야 한다’라는 일견 황당한 조건들을 건다. 이렇게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아버지는 삼 형제에게 이름을 지어준다.³⁰⁾

간추려본 위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불승(佛僧)으로 변장한 신과 ‘당금애기’라는 여인

24) 전통적인 무교(巫敎) 사상과 가정교육의 상관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김재은, 「새 시대 가정교육의 전망」, 『새 시대의 가정교육을 위한 탐색적 연구』,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151-156쪽 참조: “1. 전통과 새 시대의 만남, 1) 전통적 사상[巫]과 교육.”

25) 김인회, 「한국 교육의 무속사상사적 연원」, 『한국인의 교육학』, (이성사, 1980), 121-135쪽.

26) 김인회, 1980, 위의 글, 136-141, 142-158, 159-205쪽.

27) 박선영, 「전통적인 종교의 인간관과 인격교육」, 『한국의 종교와 인격교육』, (서울 : 아름다운세상, 1998), 245-282쪽, 248-253쪽.

28) 김진영·김준기·홍태한, 『서사무가 당금애기 전집』, 전2권, 민속원, 1999.

29) 김태곤, 『韓國巫歌集 4』, (서울 : 집문당, 1980), 39-61쪽.

30) 박일영, 1999, 앞의 글.

이 결합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탄생한다고 이 무가는 가르치는 것이다. 즉 출생의 직접적 원인은 남녀간의 성행위이지만 신의 ‘점지’가 생명 탄생의 보다 근원적 원인이라는 교육사상이 그 속에 배어있다.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는 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서 초인간적인 존재의 소관이니 만큼, 생명을 소중히 하라고 가르치는 가정교육의 내용이 분명하게 들어있음을 확인하게 된다.³¹⁾ 다음으로, ‘바리공주’ 혹은 ‘바리데기’라고 불리는 서사무가를 보기로 하자.³²⁾ 죽은 이를 위한 의례에서 장장 일곱 시간 내지 여덟 시간에 걸쳐 불려지는 이 무교 신화의 개략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후사를 바라던 임금에게 계속하여 딸만 생긴다. 화가 난 임금은 일곱 번째 딸을 내다 버린다. 임금은 결국 뭍을 병에 걸린다. 그러나 왕궁에서 호사를 하던 다른 딸들은 모두 평계를 대고 영약(靈藥)을 구해오려 하지 않는다. 결국은 버려진 천덕꾸러기 ‘바리데기’가 저승까지 가서 온갖 고생 끝에 부왕을 살리는 영약을 구해온다. 그러나 바리공주는 보장된 미래의 화려한 생활을 포기하고, 만인을 살리는 무당이 된다는 이야기이다.³³⁾

여기서 바리공주가 부왕을 살리기 위하여 저승 불사약을 구해오는 태도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피를 나누어준 부모라는 것이다. 즉 혈통이 강조된다. 왕궁에서 훌륭한 제도교육을 받고 효도와 충성을 공식적으로 배웠던 다른 공주들은 모두 만창을 피운 것으로 대비된다. 여기가 바로 경직된 유교적 교육이념에 대한 반발과 그에 대한 보완으로서 부모-자식간의 혈연 관계를 내세우는 무교적인 가정교육관이 더욱 역동적이고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다.³⁴⁾ 무교 신앙은 효(孝)라든지 충(忠)이라는 이념화된 가치 이전의 절대적인 관계인 혈연관계를 전면에 내세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념적인 효도를 축으로 하는 기성 사회 구조의 경직성에 도전하여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삶의 형성을 시도한다. 이렇게 가정을 중심으로 사랑과 화목을 다지는 현장 교육의 역할을 무교 의례가 해 왔던 것이다.³⁵⁾

무교의 신앙 내에는 죄의식이 별로 없다고 주장하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명료하고 체계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교를 비윤리적이고 저급한 종교라고 보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한 주장은, 종교사 속에서 살펴보면, 민

31)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70-80쪽 ; 최길성, 『한국 무속의 이해』, 1994, 116-120쪽.

32)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민속원, 1998), 233-288쪽 ; 김진영 · 홍태한, 1997, 앞의 글.

33) 박일영, 위의 글, 163쪽.

34) 윤이흠, 바리공주 무가의 구조적 분석, 《한국종교연구》 1, 1986, 127-150쪽.

35) 조형경, 바리공주 무가의 기호학적 분석,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논문.

중종교를 억누르고 그 자리에 지배자의 이데올로기를 심으려는 의도에서 나타나곤 하였다. 지배자들은 민중의 생활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민간 종교를 ‘미신’으로 매도하는 대신 자신들의 신념체계를 강요함으로써 존재기반을 강화해 왔다.³⁶⁾ 실제 거행되는 무교 의례를 현장에서 관찰해 보면, 무교에도 건전한 윤리가 살아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적절한 기회에 생생하게 교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리공주 무가’의 교육적 내용을 찾아보면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 나라에 대한 조건 없는 충성심, 불쌍한 이를 도와주기, 자신을 희생하기 등 특히 윤리-교육적 요소가 곳곳에 배어 있다.³⁷⁾

무교 의례가 시행하는 가정교육은 그러한 윤리적 요소들을 내포하면서도 윤리의 차원을 넘어선다. 무당은 신령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자 역할을 하면서, 인간 관계만으로 해명되지 못했던 물음들을 해명해 주고 가슴깊이 맺힌 한을 풀어준다. 이해되지 않았던 불행들로 인해 고통받던 사람들이 한풀이를 통해 치유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적극적으로 한을 수용할 수 있는 ‘한맞이’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무교의 의례가 보여주는 가정교육의 과정은 ‘한풀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풀이를 거친 다음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의미를 깊이 있게 체험하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한맞이’의 자세도 갖추게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무교 의례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그 의례를 청한 단골 집안이나 의례를 진행하는 무당 일가(一家)가 겪은 실존적인 경험에 대한 집단 전승이요, 가정교육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민중의 의례에서 드러난 이러한 이야기들은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절실한 삶의 현장에서 발생한 이야기들이고 생존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지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증언되는 살아있는 교육의 내용이다. 이와 같은 언표는 ‘시대의 징표’(sign of the time)를 깨닫도록 해준다. 고난받는 이들이 경험한 집단적인 전승의 교육내용이라든가 그러한 고난의 극복과 관련한 민중의 지혜가 무교 의례에서 감지된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기로 하자. 동해안 지방의 곳에서 ‘심청굿’은 그 전 과정이 세 시간 이상 걸리는 아주 인기가 높은 굿거리이다.³⁸⁾ “맹인거리 및 附 맹인놀이” 참조. 심청굿 무가에 의하면, 심 봉사가 눈을 뜨는 장면을 굿에서 재연함으로써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 물고기 떼를 잘 발견하도록 눈을 밝게 해준다고 한다. 겉으로 볼 때, 맹인의 개안(開眼)이라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소망을 종교의례라는 형식을 빌어 실현하는 셈이다. 그리하여 장애 상태로 죽은 이의 간절한 소망을 굿에서 상징적으로 이루어

36) 최경호, ‘미신타파’ 이후의 洞祭와 마을의 正體性,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1996.

37) 조형경, 바리공주 무가의 기호학적 분석,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8) 박경신, 「맹인거리 및 附 맹인놀이」, 『東海岸 별신굿 巫歌 제 4권』, 국학자료원, 1993, 1-256쪽.

주고 원한을 풀어주며, 살아있는 사람들[어부]의 눈도 밝게 해준다.³⁹⁾ 하지만 못 사람
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 이야기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부모자식간의 다함없는 사랑과 함
께, 잘났든 못났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인간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
야 한다는 연대감의 덕목을 가르치고 있음도 확인된다.

V. 결론: 현대사회 안에서 무교와 가정교육

가정은 인간이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세계의 내면으로부터 관계를 맺기 위한 작은
우주(cosmos: 조화·질서)이며 생의 기점(基點)이다. 인간은 가정을 이름으로써 변전(變
轉)과 혼돈(混沌) 속에서 허무하게 때를 놓치는 유랑에서 벗어나 생의 확실한 발걸음과
함께 생성의 때를 헤아리며, 생의 질서와 통일을 실현할 주인이 되는 것이다.⁴⁰⁾

얼마 전 우리는 새로운 천년기(millennium)를 인류사의 대전환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
면서 희망 속에 맞이하였다. 그러나 현실 사회의 모습은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별로 희
망적이지 못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편
의성과 유용성만을 앞세우는 세대 때문에 가정도 급속히 변질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를 극복하고 가정이 다시 화목한 제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우리 사회의 희망도 되살아
나지 않겠는가?

특히 가정이 이 사회의 일치와 평화를 위한 표징(表徵)이 되고 죽음의 문화를 생명
의 문화로 바꾸어놓을 때, 이 사회는 활력과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로 거듭 날 것이
다. 인도의 종교학자 레이언(S. Rayan)은 문명의 전환 시기에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실
현해야 할 종교의 새로운 전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주, 특히 인간의 세계는 상호존적인 실존들이 거미줄처럼 엉켜있습니다..... [현대 사
회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의미와 가치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상업적인 미디
어에 의한 조작과 피상적인 만족에 영적인 좌절감을 느끼게 하며, 오늘날의 위기와 변화
에 직면하게 합니다..... 새로운 종교의 비전이 필요하고 또한 분명해지는 곳이 바로 이
곳입니다. 그리고 신선한 영적 경험이 상황의 부름과 영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꽃피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지적인 문장이라기보다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시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주 속

39) 신동익, 1971, 93-125쪽; 이정복, 1976; 김인회, 1976, 125쪽.; 이정복, 1976; 김인회, 1976.

40) 인간학교육원 편, 『인간학』,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7), 194쪽.

에서 표현됩니다.⁴¹⁾

레이언의 통찰처럼, 앞만 보고 달려오는 사이, 인간성이 말살된 피폐한 세계의 모습을 우리는 일상의 경험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위기가 바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 오는 영성(靈性)이 사라져버린 가정과, 그렇게 삭막하고 메마른 가정에 당연히 뒤따르는 가정교육의 부재와 직결되어 있음은 다시 거론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원초적인 종교로서 무교가 강조하는 공동체성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의 길을 재발견하고 음미하는 일이 오늘의 우리에게 다시금 중요하게 다가오는 소이(所以)이다. 이러한 요청이야말로 무교가 포스트-모던한 이 시기에 동서를 막론하고 다시 각광받는 이유의 하나이다. 이제 기초공동체인 가정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는 새 천년기를 맞고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삶의 역동성을 불러일으키는 비전을 새삼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무교가 수 천년 동안 한국인들의 삶에, 특히 가정생활에 끼친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고 하겠다. 그러한 무교의 종교심성 내지 영성이 지금까지 우리 문화의 뿌리를 이루고 있으며, 한국인의 심성과 가치관을 - 가정을 그 기점으로 하여 - 상당 부분 형성하여 온 것도 사실이다. 가정교육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한국의 종교문화는 무교를 통한 문화의 전승이라는 모습 속에서 오랜 동안 그 기본 심성이 단절되지 않은 채 공동체의식, 현세중심주의, 현실 적응, 문화 전승 등의 중요한 교육적 기능을 꾸준히 유지해 왔던 것이다.

반면에 심각하고도 신속하게 변하는 현대 사회 안에서 가정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문화 계승의 중요한 교육적 마당으로서 가정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작업은 중요하고 뜻 있는 일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전통 가정교육의 원리들을 무교라는 이 땅의 기층 종교와 관련지어 규명함으로써 한국의 가정교육의 뿌리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그러한 원리의 재발견은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한국인의 문화전통을 재확인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틀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41) Samuel Rayan, *Transition of Civilization and the New Vision of Religion*, 크리스천아카데미판, 『문명의 전환과 종교의 새로운 비전』, 종교간의 대화 30주년기념대화모임자료집, 1995, 1-6쪽.

< 참 고 문 헌 >

- 국제한국학회 편(1998), 『한국문화와 한국인』, 서울 : 사계절.
- 김광웅(1997), 「전통가정교육의 방법적 원리」, 『새 시대의 가정교육을 위한 탐색적 연구』,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숙자(1989), 『부모참여교육론』, 서울 : 교육과학사, 초판 4쇄 1996.
- 김인회(1980), 「한국 교육의 무속사상사적 연원」, 『한국인의 교육학』, 이성사.
- 김인회(1983), 「무속사상의 인간관과 현대 교육적 의미」, 『한국의 전통교육사상』,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인회(1983), 『한국인의 가치관. 무속과 교육철학』, 서울 : 문음사.
- 김재은(1989), 『자녀교육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웅진출판사.
- 김진영 · 홍태한(1997), 『바리공주 전집』, 전 2권, 민속원.
- 김진영 · 김준기 · 홍태한(1999), 『서사무가 당금애기 전집』, 전 2권, 민속원.
- 김충기(1998), 『21세기 자녀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 김태곤(1980), 『韓國巫歌集』 4, 서울 : 집문당.
- 박경신(1993), 「맹인거리 및 附 맹인놀이」, 『東海岸 별신굿 巫歌. 제 4권』, 국학자료원.
- 박선영(1998), 「전통적인 종교의 인간관과 인격교육」, 『한국의 종교와 인격교육』, 서울 : 아름다운세상.
- 박일영(1999), 『한국 무교의 이해』, 종교학총서 9, 서울 : 분도출판사.
- 서대석(1980),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 윤이흠(1986), 바리공주 무가의 구조적 분석, 《한국종교연구》 1.
- 이계학(1985), 「단군신화의 교육학적 고찰」, 『황성모회갑기념논문집: 사회구조와 사회사상』, 서울 : 심설당.
- 이계학 외(1993),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계학(1995), 「교육방법론으로서의 효」, 『효사상과 미래사회.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계학(1995),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의 현재적 조명」, 한국아동학회, 『세계화를 위한 “효”가치관 정립과 자녀양육 방향 모색-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 이계학 외(1997), 『새 시대의 가정교육을 위한 탐색적 연구』,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계학(1999),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과 종교』, 한국종교교육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자료집, 1999.12.17.
- 이두현(1978), 동제와 당굿. 경기도 양주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대논집》 17, 서울

- 대학교사범대학, 1978.
- 이재연·김경희(1989), 『부모교육』, 서울 : 양서원, 제 6판: 2000.
- 이홍우(1993), 「전통가정교육의 방법적 원리」,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 인간학교육원 편(1997), 『인간학』,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장주근(1979), 「민간신앙」, 『한국민속학개설』, 보성문화사.
- 장철수(1984),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조선일보 사회부 편(1987), 『우리 집 가정교육』, 우석.
- 조형경(1996), 바리공주 무가의 기호학적 분석,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논문.
- 주강현(1992), 『굿의 사회사. 한국의 생활과 풍속 1』, 웅진출판.
- 진원중(1997), 『사례중심의 가정교육론』, 동문사.
- 최경호(1996), 「미신타파」 이후의 洞祭와 마을의 正體性,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 최준식(1998),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1: 무교, 유교, 불교』, 서울 : 사계절, 1998.
- 차옥승(1997), 『한국인의 종교경험: 무교』, 서울 : 서광사.
- 최길성(1994), 『한국 무속의 이해』, 1994.
- Samuel Rayan(1995), *Transition of Civilization and the New Vision of Religion*, 크리스천 아카데미판, 『문명의 전환과 종교의 새로운 비전』, 종교간의 대화 30주년 기념대화모임자료집(아카데미 하우스).
- 하효길(1998), 『풍어제』, 빗갈 있는 책들 210, 대원사.
- 한국종교교육학회 편(1998), 『한국의 종교와 인격교육』, 서울 : 아름다운 세상.
- 홍태한(1998),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민속원.
- Aloysius Pieris(1986), *Theologie der Befreiung in Asien. Christentum im Kontext der Armut und der Religionen*, Freiburg i.Br.
- Hans-Jürgen Fraas(1993), *Die Religiosität des Menschen. Religionspsychologie*, UTB Vandenhöck.
- Henrik H. Sørensen(1995), *Religions in Traditional Korea*, Copenhagen: The Seminar for Buddhist Studies.
- Karl Steinbuch(1973), *Kurskorrektur*, Stuttgart.
- Paul Becher(1976), *Familie. Personale Lebensgemeinschaft und Gesellschaftliches Strukturelement. Katholische Soziallehre in Text und Kommentar*, Heft 5, Köln.
- Roman Bleistein(1976), *Kinderfeindliche Gesellschaft?*, Stimmen der Zeit.
- W.B. Kristensen(1971), *The Meaning of Religion*, The Hague: Martinus Nijhoff.
- W. James(1902),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A Study in Human Nature*, Penguin Books, 1982(김성민·정지런 역, 『종교체험의 여러 모습들: 인간의 본성에 관한 연구』, 대한기독교서회, 1997).